

3년만에 확 달라진 기아 준대형세단 '더 뉴 K8' 출시

차체 커지고 실내 고급화...운전 편의성 높은 최첨단 기술 탑재 대담하고 혁신적 디자인...가격 2.5 가솔린 3736만~4550만원

기아 K8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3년 만에 출시됐다. 새로워진 K8은 기아 정체성 강조된 외관 디자인과 더욱 커진 차체, 최신 첨단기술과 고급화로 꾀했다. 평가가 나온다.

기아는 11일 페이스리프트 모델 '더 뉴 K8(The new K8)'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계약에 돌입했다. 더 뉴 K8의 특징은 커진 차체, 기아 패밀리룩 강화, 실내 고급화, 운전 편의성을 높인 최첨단 기술 탑재 등으로 요약된다.

기아의 대표 준대형세단인 K8은 지난 2021년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고급화에 나서 K7에서 이름을 바꿔 시장에 나왔다.

기아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는 평가를 받는 K8은 이번 페이스리프트로 더욱 고급스럽게 진화했다는 게 기아의 설명이다.

먼저 K8의 내외관 디자인은 기아의 최신 디자인 정체성을 반영해,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별다른 특징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전 모델과는 달리 대담하고 혁신적인 디자인 요소를 적용했다.

전면부는 기아의 새로운 패밀리룩인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적용했다. 수직적 조형을 강조한 미래지향적인 분위기의 좌·우 램프가 가느다란 중앙부 램프와 이어지며 차폭감을 키웠다. 또 범퍼에

는 하단부에 검정색 크롬 장식을 적용해 와이드한 느낌을 더했다.

'더 뉴 K8(The new K8)'는 실제로 전 모델보다 차 크기가 커졌다. 전면 타이어 중심에서부터 전면 범퍼까지를 의미하는 오버행은 10mm, 후면 타이어 중심에서 후면 범퍼까지를 의미하는 리어 오버행은 무려 25mm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볼륨감이 있는 디자인을 적용해 크지만 역동적인 차체를 연출했다.

후면 디자인 역시 패밀리 룩이 강조된 디자인을 적용해 전면부와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완성했다.

새로워진 K8에는 3가지 패턴의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가 적용됐고, 현대차그룹 최초로 '다이나믹 에스코트 라이트'가 적용돼 차량 승·하차시 빛의 움직임으로 탑승객을 맞이하고 배웅한다.

실내는 고급감이 물씬 풍기는 소재를 사용해 수평감과 조형미를 강조했다.

탑승객의 손이 자주 닿는 부분에는 부드러운 느낌의 소재를 적용했고, 1열은 '실버 라인딩크 우드그레인 내장재'가 좌·우측 문까지 이어지며 실내 고급감을 더했다.

특히 엠비언트 라이트는 고속 안내, 어린이 보호 구역 진입, 음성인식, 웰컴·굿바이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운전자와 교감하듯 점등된다.

콘솔에는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듀얼) ▲



기아가 3년만에 출시한 '더 뉴 K8'의 외관(오른쪽)과 실내 모습.

지문 인식 시스템 ▲이중 사출 인쇄 방식 컵홀더 커버 ▲열선 및 자외선(UV-C) 살균 기능이 포함된 양방향 콘솔암스트를 신규 적용해 1열 탑승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쿠션과 시트백의 공기주머니를 제어해 최적의 착좌감은 물론 컴포트 스트레칭 기능으로 편안한 이동을 돕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동승석에도 적용됐다.

기아는 K8을 '아이보리 실버', '선셋 베이지' 등 신규 2종을 포함한 6종의 외장 색상과 '라운지 브라운 투톤', '뉴트럴 베이지 투톤', '딥네이비 투톤' 등 신규 3종을 포함한 4종의 내장 색상으로 운영한다. 차별화된 디자인의 '시그니처 블랙' 트림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밖에 전방 카메라로 인식한 노면 정보와 내비게이션의 지도 정보를 활용해 고속 방지턱 통



과 등의 주행 상황에서 속업소버 감쇠력을 최적 제어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등 갖은 첨단 기능을 탑재해 보다 안락한 주행 환경을 구현한다.

K8 가격은 2.5 가솔린 3736만~4550만원, 3.5 가솔린 4048만~4837만원, 1.6 터보 하이브리드 4372만~5167만원 등으로 형성됐다.

기아는 K8 2.5 가솔린, 3.5 가솔린, 3.5 LPi 모델을 이달 중 고객에게 인도하고, 하이브리드 모델

은 주요 부처 인증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출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아는 K8 고객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이벤트와 전용 구매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기아 관계자는 "K8은 기아 세단 라인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아의 대표 세단"이라며 "세련된 스타일링과 향상된 상품성을 갖춘 더 뉴 K8은 준대형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화재 방지책 찾아라...자동차업계 '전기차 포비아' 불식 주력

현대차 13종 탑재 배터리 재조사 수입차 업체 국토부 협의 대책 강구

최근 아파트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에 이어 자동차업계도 방지 대책을 내놓으며 소비자 불안감 해소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홈페이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 데 이어 배터리 이상 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화재 위험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KG모빌리티(KGM)와 수입차 업체들도 국토교통부 등과의 협의 아래 대책을 강구 중이다.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지하 주차장에 출입하게 하는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나오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9일 현대차 10종과 제네시스 3종 등 총 전기차 13종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조사를 밝혔다.

중국산 CATL 배터리가 탑재된 코나 일렉트릭을 제외하곤 현대차 전기차에는 모두 국내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 또는 SK온의 제품이 장착됐다.

현대차는 전기차 출시 당시에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고, 소비자 문의 시에도 제조사를 밝히고 있다. 다만 최근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배터리 제조사 관련 문의가 쇄도해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아도 이날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화재로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는 것과 관련, 고객 우려 불식 차원에서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배터리 과충전을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는 만큼 배터리 이상 징후 모니터링 시스템과 과전압 진단 등의 기능을 통해 과충전에 따른 화재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기아 EV3,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아이오닉7 등이 줄줄이 출력을 대기하는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안전 부문에서 최고 수준의 기

술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모습이다.

수입차를 비롯한 다른 자동차업체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들은 13일 국토교통부의 전기차 안전 점검회의에서 배터리 정보 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각자의 대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인건 벤츠 화재 이후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제조·수입차 업체에 배터리 제조사 공개에 대한 입장을 사전 타진했고, 이번 회의는 업체들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로 마련됐다.

다만 수입차 업체들은 제조사가 아닌 판매 자회사로 본사와의 협의가 필수인 만큼 현대차·기아와 같은 빠른 대응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부품 공급사는 원래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사 입장이라 공개 여부를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다"며 "한국에서 전기차 화재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본사에 전달했고, 한국법인 자체적으로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KGM, 쿠페형 SUV '액티언' 20일부터 고객 인도

S7, S9 2가지 모델 출시

가격 3000만원 초·중반대

KG모빌리티(KGM)는 12일 신형 쿠페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액티언의 가격과 세부 사양을 공개했다.

액티언은 오는 20일부터 고객에 인도된다.

액티언은 S7, S9 2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엔트리 모델인 S7의 가격은 3000만원 초반대, S9은 3000만원 중반대로 책정됐다.

액티언은 전면부 후드와 범퍼에 태극기의 '건곤 감리' 패턴 발광다이오드(LED) 주간주행등(DRL)을 더해 다이나믹한 SUV 이미지를 연출했다.

실내 공간은 다익스텐션 플로팅 루프 라인을 통해 여유로운 2열 헤드룸(1천1mm)을 갖췄고, 넉넉한 라기지 공간(668L, 2열 전체 폴딩 시 1568L)을 확보했다.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AVNT(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텔레메틱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일체형으로 연결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KGM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아테나 2.0'이 적용됐다.

액티언은 친환경 1.5L 터보 가솔린 엔진(e-XGDi150T)과 3세대 아이신 6단 자동변속기기 매칭된 파워트레이너으로 최대토크 28.6kg·m, 최고 출력 170마력을 낸다.

기본 엔진보다 출발 시 가속 성능을 10% 높였고, 실 운행구간(시속 60~120km)의 가속력도 5% 향상했다. 연비는 2WD 기준 복합 11km/L(도



심 10km/L, 고속 12.5km/L)다.

저공해 3종 자동차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엔진을 적용해 공영 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등의

KGM이 출시한 신형 쿠페형 SUV '액티언'의 외관(위)과 내부 모습

첨단 안전 사양도 탑재했다.

액티언은 지난달 15일 사전예약 개시 하루 만에 1만6000대가 예약됐으며, 이날까지 KGM 창사 이래 역대 최다인 5만5000대의 사전예약을 기록했다.

KGM 관계자는 "차별화된 도심형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인 액티언으로 SUV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수요 상생을 견인해 나가겠다"며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를 통해 비대면 구매 성향이 강한 젊은 고객층의 유입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르노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중고차 가격 보장

잔가보장 80%부터 차등 적용

르노코리아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이하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모델(사진)을 구매할 고객을 대상으로 중고차 가격 보장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해 운행하던 고객이 차량을 반납하고 르노코리아의 신차를 구매하면 잔가보장에 따라 업계 최고 수준의 잔존 가치를 보장하는 서비스다.

잔가보장은 최대 80%에서 시작해 월간 1250km씩 기준 주행거리를 늘려가며 최장 5년까지 차

등 적용된다.

기간별 최소 주행거리에 도달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5000km 구간당 0.5%의 보장률을 추가로 제공한다.

르노코리아가 4년 만에 선보이는 신차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 모델은 내달 초부터 고객에 인도된다.

현재까지 르노코리아 영업 및 네트워크 총괄 전무는 "고객들이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를 더욱 부담 없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업계 최고 수준의 차량 잔가보장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토부 중고차 연장보증 공제보험 출시

매매공제조합 통해 상품 제공

엔진·미션 등 112개 항목 보증

중고차 구매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 부담은 낮추고 보장 범위는 넓힌 중고차 공제보험상품이 정부 주도로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기간 만료 이후 최대 1년까지 엔진, 미션 등 112개 주요 부품에 대해 추가로 보증하는 임의 보험 상품을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 2월 중고차 매매 보증과 손해배상 등을 위해 국토부 인가를 거쳐 설립됐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중고차 거래 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책임보험인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달리 작성됐을 때 구매자의 피해를 구제한다.

다만 중고차 매입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까지만 보증받을 수 있다.

이번 연장보증 서비스는 보증 기간 내에 중고차

가 고장 나면 수리 비용을 지급하는 연장보증 상품을 시중차보다 훨씬 저렴한 최저가로 제공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대차 쉐타페 2.0의 경우 약 30만원인 시중보증 가입비의 4분의 1 수준인 6만9500원만 받고, BMW 520의 경우 약 100만원인 시중가의 3분의 1 수준인 30만5000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중고차 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등록과 침수·투닝 이력 등에 문제가 없는 차량만 가입을 받는다.

상품에 가입된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는 상품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최대 1000만원까지 수리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조합은 민간 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연장보증 서비스 전용 고객센터를 운영, 상담과 수리 접수, 보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행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중고차 연장보증 서비스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불안을 경감하고, 영세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생 모델'이라며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보증 서비스는 보증 기간 내에 중고차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